

보도시점 (전매체) 8. 29.(목) 12:00

“이제는 글로벌 축제!”...9월 동행축제 해외서 첫 개막

- 29일, 중소·소상공인의 아세안 시장개척 위해 최초로 베트남에서 개막
- K-뷰티 등 체험과 판매가 가능한 우수 제품 팝업스토어·상시대장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9일(목) 베트남 하노이 L7 호텔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3년 양국간 교역액이 794억 달러를 넘어선 한국의 3대 무역국이자,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한 곳으로, 우수한 제품들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한 첫 출발지로 적합하며 특히, 뷰티, 푸드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이번 특별행사는 오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는 9월 동행축제의 첫 시작을 알리는 ①개막식과 롯데와의 협력을 통한 ②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상담회, ③소상공인 팝업스토어, ④소공인 전용 판매장 개점 등이 개최되었다.

① 내수를 넘어 해외로 향하는 동행축제 개막식(10:00~10:30, 현지시간)

29일(목) 10시, 하노이 L7호텔에서 개최한 개막식에는 베트남코참연합회장 등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하여 롯데마트 강성현 대표, 장호승 주베트남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 등 50여 명의 내빈들이 자리했다.

동행축제의 의미를 담은 특별영상을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와 협력, 양국의 성장을 기원하는 전통등 조명볼 세례모니로 마무리 되었다.

오영주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에서 동행축제의 개막을 알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 제품들이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세안, 세계 곳곳까지 알려질 수 있길 바라며,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② 한국 혁신 제품들을 베트남에 선보이는 수출상담회·팝업스토어 운영

29일(목) 11시부터 18시까지 L7호텔에서 중기부와 롯데가 협력하여 준비한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지난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롯데계열사간 체결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행축제 참여기업 40개사와 롯데 입점기업 40개사가 각각 참여하였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유수의 유통기업 바이어들과의 1:1 상담을 통해 내수를 넘어 해외로의 진출의지와 열정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선보이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K-뷰티·푸드 기업들의 제품을 살펴 보며, “대한민국 수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한 우리 제품들이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격려하였다.

또한, 28일(수)부터 다음달 3일(화)까지 7일간 메인 행사장인 하노이 롯데몰 1층 아트리움에서 동행축제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제품들을 직접 체험·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쇼핑, G마켓글로벌 등 베트남 진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QR코드 방식으로 제품 판매를 진행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사은품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K-뷰티에 관심있는 베트남 현지 고객들을 위해 디지털 네일아트체험 부스와 한국에서 초빙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진행하는 메이크업 쇼 이벤트도 열렸다.

아울러, 롯데몰 지하 1층 롯데마트에서는 롯데에서 선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이 열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K-푸드 시식, 뷰티제품 체험 등 참여형 공간도 마련되었다.

오영주 장관과 강성현 대표는 팝업스토어와 롯데마트 판촉전을 둘러보며, 한국 제품들이 현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동참했다.

③ 소공인 제품 전용 판매점 개점(14:00~14:30)

29일(목) 14시에는 하노이 빈컴메가몰 로열시티에 소공인 뷰티 상설매장인 두근두근(DooK[·]N DooK[·]N) 개점식이 개최되어 동행축제 열기를 이어갔다.

두근두근(DooK[·]N DooK[·]N)은 국내 우수 소공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에 개점하는 소공인 전용 오프라인 판매장으로, 베트남 주요 소비층인 20~30대 여성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해 K-뷰티 제품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매장 내부 분위기를 한국 여행을 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오영주 장관과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조현민 (주)한진 사장 등이 참석하여 입점된 제품들을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7월에 발표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첫 개점한 소공인이 직접 제조한 뷰티·헬스 제품 매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두근두근 매장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소공인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내수활성화추진단	책임자	과 장	이정훈 (044-204-724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정은 (044-204-7266) 정륜조 (044-204-7361)
	디지털소상공인과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4-7870)
		담당자	사무관	류민희 (044-204-7282)
	지역상권과	책임자	과 장	김윤우 (044-204-7880)
		담당자	사무관	박현용 (044-204-7885)

